

리투아니아 민속복식의 고찰

김 문 영 · 조 우 현

계명대 패션학부 전임강사(인하대 박사과정) · 인하대 의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Lithuanian Folkcostume from 19th Century

Mun-Young Kim · Woo-Hyun Cho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in Keimyung Univ.(Doctoral Course in Inha Univ.)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 Inha Univ.

(2002. 5. 1 투고)

ABSTRACT

The Folk-dress of some parts of the traditional style is extremely focused and puts value on protecting itself against changes. Generally rural areas are much more conservativ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Its environment is sluggish and slow and daily routines change slowly. So they take friendly a position between a race and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which is expressed in the Folk-dress. Also, a dress is the most preferred individual object as a symbol of collective homogeneity. By those people who preserve these kinds of the individual objects and by those people who have ethnic conservation, folk-dress was handed down to the present age and the festival dress was used as a tool of ethnic tradition and bind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study and researc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olk-dress of the Lithuanian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and the folk-dress of the surrounding north-eastern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when we compare these with the folk-dress in terms of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relationships between Lithuania and the north-eastern European countries, we can find out that they had a good effect on the folk-dres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Key Words : Lithuanian Folk-costume (리투아니아 민속복식), Zemaiciai(제마이티아),
Aukstaitija(아욱슈테이티아), sermaga(외투), corsage(바디스), ranges(여성모자),
klumpes(나막신)

I. 서론

한 지역의 문화는 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문화권간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정 지역에서 전개된 문화 현상의 고찰은 보다 폭넓은 관점의 유기적 연계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¹⁾ 이는 문화가 갖는 성격상 그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반복 학습되며 전이되는 과정을 갖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 요소에 의해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을 복합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여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근접지역의 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횡적으로는 거대한 사회 문화 속에서, 종적으로는 장대한 시대흐름의 측면에서 각각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또한 민족복식의 사회 내부와 외부에 대한 시차적인 기호로서의 기능은 언어와 같은 모양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를 맡고 있다. 물론 언어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민족의상의 착용은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의미 이외에도 그것이 상호간의 의미 전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계성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³⁾

본 연구는 한 민족의 배경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그것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민족복식의 관계를 북유럽지역의 리투아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민족복식이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더불어 민족의상은 정치적, 종교적 구조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에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리투아니아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혼합, 또는 전이의 관계에서 민족복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리투아니아의 민족복식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주변국가의 민족복식과 비교하여 본다. 셋째, 리투아니아 민족복식의 정착 요인과 그 특징을 그 민족의 정체성확립의 수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적 고찰과 현지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21세기 사이버 공간에서 각 국 문화의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서 각 국의 문화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며 지정학적으로 약소 민족국가에 있어서 민족복식의 착용경로는 그 민족의 정신사를 이해하며 주변국의 복식내용의 이해도 수반될 것이다. 또한 현재 자료가 영세한 동북 유럽문화권의 민족복식을 소개하여 끊임없이 부각되는 패션 트렌드의 에스닉 자료의 활용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리투아니아 민족복식의 형성 배경

리투아니아는 발트해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4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의 평균온도는 영하5도이며, 7월의 평균기온은 17도정도의 온화한 기후조건을 갖는다.⁴⁾ 빙하가 흘러내려 만든 758개의 강과 2,833개의 호수로 인하여 형성된 저지대의 습지와 산악고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리투아니아의 민족 구성은 리투아니아계 80.6%와 그 밖에 러시아계, 폴란드계, 소수의 벨라루스계이며 다른 발틱국가들에 비해 자민족의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발트계 민족은 핀란드어 파생언어를 사용하는 핀고우르계 민족과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의 발트계의 슬라브어가 포함된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두 민족 계열로 분류된다.⁵⁾ 인도-유럽어족 계열의 발트어는 리투아니아어와 라트비아어만이 현재까지 존재한다. 방언을 중심으로 살펴본 리투아니아의 언어사용 지역은 보통 크게 세마이티아(Zemaciai) 지역과 아욱슈타이티아(Aukstaiciai)의 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지역은 각각 3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지며<그림 1> 이러한 언어영역의 구분은 역사적으로 지역성에 기인한다. 리투아니아의 민족문화 또한 이러한 2개의 지역중심문화로 나타나며 언어 및 지역성의 구분은 생활 습관과 민족의 구성, 역사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민족적인 풍습을 나누는 민족학적 지역의 구분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 풍습도 지역 민속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종교적 구성은 리투아니아인의 80%가 로마 카톨릭이며, 그 나머지는 10%의 루터/ 칼빈신교이며, 유대교, 그리스정교로 구성이 된다. 대부분의 리투아니아 국민은 카톨릭 신자이나, 제마이티야(Zemaitiai)의 서쪽 클라이페다(Klaipeda)지역주민의 대다수는 루터교로 나타난다. 이들은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의식주의 생활문화를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종교의 구성은 언어에 의한 지역구분에 이어 리투아니아에서 또 다른 집단 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종교적, 사회적, 언어적 지역 구분을 근거로 한 리투아니아의 민속 문화에 대한 지역 구분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림 1> Lithuanian ethnolinguistic group (Annals of Human Biology, 2001,p1)



<그림 2> Ethnic regions

세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리투아니아의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지역적 구분은 네리스(Neris), 네무나(Nemuna)와 메르케스(Merkes)

강 사이와 옛날의 요트빙지안(Yotvingian)땅과 북쪽으로는 제마이티야, 남서쪽으로는 서쪽의 프리시안 지역까지 뻗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6) 현재는 지역적 구분을 통하여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리투아니아 서쪽의 제마이티야(Zemaitija, 저지대), 중앙과 동부의 아욱슈테이티야(Aukstaitija, 고지대), 북부와 네무나스(Nemunas)강의 남부의 수발키야(Suvalkija), 네무나스강 옆의 남동부 주키야(Dzukija)로 4개 지역이며, 제마이티야의 서쪽항구인 클라이페다는 루터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수리투아니아라고도 불리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1개 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들은 저마다 다른 정치적, 경제적 여건과 때로는 다른 종교적 여건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많은 독특한 방언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7)

또한 최초의 리투아니아 역사는 기원전 2000년 전쯤으로 추정되어 초기의 발트인은 리투아니아인과 라트비아인을 비롯한 고프로이센인(Preussen)들이었다. 뒤이어 핀우고르인, 에스토니아인 등이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13세기까지 바이킹, 핀고우족, 프로이센족, 등 다양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 왔다. 또한 게르만인과 슬라브인들간의 몇 세기에 걸쳐 지속되는 그들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8)

1386년 리투아니아는 요가일라(jagiello)공작과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jadviga)와의 결혼을 계기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으로서 중·동부유럽의 최강국으로 군림한 시기도 있었다.9) 이 시기 리투아니아에는 폴란드의 문화가 귀족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상류층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1410년 타넨베르그(tanenbergr)지역에서 있었던 튜톤(teuton)기사단과의 전쟁의 승리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귀족간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10) 이러한 폴란드와의 유대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수도인 빌뉴스(Vilnius)지역 및 살치닌카이(Salcininkai)지역 등의 주민은 대다수가 폴란드 계열의 리투아니아인으로 폴란드의 문화권을 형성한다.11)

1831년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 문화동화정책으로 폴란드 문화와 교육을 차단시켰다.12) 이는 후에

리투아니아의 민족문화의 재 발견 및 정체성 문제를 더욱 고조시켜 자주적으로 민족문화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리투아니아가 위치한 발트해 연안지역은 크게 초기의 바이킹 문화와 핀고우르문화, 13세기 이후는 정치, 사회적으로 폴란드 문화와, 러시아문화의 융합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의 민속복식은 19세기말이 되면서 유럽의 도시의 산업화에 따라 착용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농촌지역에서만 잔존하게 되는 복식으로 남았다. 그 후 점차 농민복만이 민족복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리투아니아 역시 19세기 말 농촌을 제외하고는 사라져 버린 민속복식을 민족 부흥정책의 일환으로서 복구가 요구되어져, 폴란드 민속복에 근접한 계열의 수발키(Suwalki) 복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연구되어 복원되고 있다.¹³⁾

Ⅲ. 리투아니아 민족 복식의 구성

1. 지역별 복식의 특징

리투아니아는 지형적인 특징과 방언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진다. 방언에 의한 언어적 지역 및 기본 문화적 배경은 리투아니아를 크게 양분하여 제마이티야 저지대와 중앙과 동부의 아욱슈테이티야 고지대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민속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성배경에서 보았듯이 5개 지역으로 구분된. 서쪽의 제마이티야, 중앙과 동부의 아욱슈테이티야, 북부와 네무나스강의 남부의 수발키아 네무나스강 옆의 남동부 주키야(Dzukija)로 나뉘며, 제마이티야의 서쪽 부분의 황구인 클라이페다지역의 소수리투아니아(Lithuania Minor)이다.

1) 제마이티야(Zemaitija, 저지대)

제마이티야 농촌부인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진한 색을 선호하며 빨강과 검정, 녹색과 검정으로 된

배색을 좋아한다. 이 지역 부인들은 어깨에 요크장식이 있는 긴 튜닉 스타일의 셔츠를 주로 입는데 소매산부분, 커프스, 좁은 칼라, 셔츠의 앞단에 빨간색실 수를 놓기도 하였다. 셔츠는 일반적으로 마르슈키네이(marskniai)라고 부른다. 제마이티야의 전통적인 자수는 주로 기하학 무늬가 사용되며, 거미집처럼 보이기도 한다. 리투아니아어로 일반적으로 스커트를 시요나스(sijonas)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스커트는 발목길이로 4쪽 혹은 7쪽으로 넓게 재단이 되며, 허리에 뻣뻣하게 주름을 잡는다.

19세기 여성들은 여러 개의 스커트를 겹쳐 입었으며, 걸쪽의 스커트는 격자무늬보다는 수직의 스트라이프의 직물을 주로 사용하였다¹⁴⁾. 이 스트라이프 패턴은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직물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부의 제마이티야는 매우 다채로운 시요나스를 선호하였으며 빨강, 녹색, 보라색, 어두운 빨강, 흰색, 검정이 혼합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된 색은 빨강으로 리투아니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 제마이티야의 시요나스는 밝은 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안에 받혀 입는 스커트는 수평선의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며, 주로 밖으로 보이는 아랫부분의 덧단부분에만 화려한 모직으로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에이프룬은 폭이 넓고, 풍성한 주름이 있으며, 허리 아래에서 묶어 입으며, 스커트 밑단보다 손바닥 크기만큼 짧게 만들었다. 에이프룬은 흰색 린넨으로 만들며, 붉은색 린넨으로 만든 가닥 또는 다양한 굵기의 면 실뭉치로 수직선을 붙여 장식하거나, 지그재그 무늬 또는 비대칭, 대칭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에이프룬의 스타일은 19세기 중엽부터 지역마다 바뀌어, 북부 지방의 경우 경사방향으로 이랑이 진 면직물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빨간색, 녹색, 노랑색, 그리고 흰색을 섞어서 사용하는 지그재그 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코르사지(Corsage)라고 불리는 바디스는 짧은 길이로 허리까지 내려오며, 초기에는 개더 잔주름이 겹쳐지는 형태이었으나 후기에는 규칙적인 프리츠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제마이티야지역의 바

디스는 가내직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데, 수평선의 스트라이프 또는 격자무늬의 고운 패턴으로 스커트보다는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배색한다.

제마이티아의 귀부인들은 레이스가 달린 가죽구두를 신었다. 특별한 경우에 신는 클람페즈(klumpes)라는 나막신은 기하학적인 패턴의 그림이나, 구슬, 꽃 등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다. 양말은 모직이나 린넨의 니트에 기하학무늬가 놓여있다. 제마이티아 여성의 머리 장식은 두건, 스카프, 쇼울, 보닛형의 모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혼여성의 머리장식은 랑제즈(Ranges)라고 하며, 왕관 모양의 모자로 여러 개의 실크리본으로 장식하여 만들어졌다. 기혼 여성의 머리장식은 흰색 린넨으로 만든 보닛이 있는데 이는 귀를 덮는 날개가 달려 있어 특이하다. 그밖에도 두건과 스카프를 주로 사용하여 머리 전체를 감추는 것이 기혼여성의 두식이며, 스카프의 매듭을 머리 위에 오도록 묶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만 독특한 방식이다. 리투아니아의 여성은 다양한 크기, 형태, 자수 등을 장식한 스카프들을 사용하였는데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타이처럼 목에 두르는 수건, 그리고 어깨에 쇼울을 걸치는 형태로 동시에 여러 개의 스카프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⁵⁾. 추운 겨울에는 모피를 두른 세르메가(sermega)라는 모직의 카프탄 형의 코트를 입었다. 악세서리로는 여러 개의 목장식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리투아니아 특산품인 호박과 산호, 채색된 유리구슬들로 화려한 목걸이를 만들어 착용한다.

제마이티아의 남자복식은 세르메가라는 카프탄 형의 코트를 주로 입었다. 이 코트는 회색이나 밤색의 자연색조로 된 모직물의 코트로 허리선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밑단이나 가장자리에 장식을 하거나, 우아해 보이기 위하여 뒷부분에 주름을 잡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코트의 형태들이 도시형인 슈르두타즈(surdutas)로 서서히 도시적인 형태로 변화해 갔다. 카프탄 스타일의 세르메가는 목 끝까지 단추가 채워졌는데 슈르두타즈는 라펠(Lapels)이 있어서 안에 입은 조끼가 밖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남자들의 셔츠는 커프스와 셔츠의 깃

등이 외투의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자수 등의 장식을 하였는데, 린넨 셔츠에 장식된 면(Cotten) 칼라를 따로 다는 형태도 있었다.

구두는 일반적으로 부츠를 즐겨 신는데, 나지네스(nagines)라는 가죽으로 만든 굽이 없는 납작한 구두, 또는 특별한 날에는 클람페즈라는 나막신을 신는다. 목에는 흰색과 붉은 색의 장식이 있는 실크 또는 고급의 모직으로 된 손수건을 맨다. 남자복식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모자로 어두운 색의 펠트로 된 모자에 공작 또는 수탉의 깃털을 꽂기도 하며, 꽃을 그리거나 붉은 색의 격자무늬 리본을 모자 옆 테두리에 밴드로 장식하였다.

2) 아욱슈테이티야(Aukstaitija, 고지대)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을 이루며, 가장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동부의 아욱슈테이티야는 동성기와 호수가 많으며, 건조하며, 밝고 시적이며, 명랑한 성격의 농부들이 주로 살고 있다.¹⁶⁾

이 지역의 의복 스타일은 고전적인 원시형의 튜닉스타일로 어깨에는 견장이 있으며, 소매와 커프스에 장식이 많고 왼쪽으로 트임이 있는 셔츠의 형태로 남아있다.

시요나스(스커트)는 모직이나 린넨이 주로 사용되며, 린넨은 흰색으로 만들고 붉은색의 단이 있는 넓고 풍성한, 허리에 주름이 많이 있는 단순한 스타일이었다. 모직의 스커트는 린넨의 스커트보다 화려하게 꾸며진다. 두 개의 스커트를 겹쳐 입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을 하거나 걸을 때는 위의 스커트는 걷어 올려 다른 스커트 위에 묶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안쪽의 스커트는 보여지는 단에만 장식을 하게 된다. 주로 사용되는 색은 녹색과 붉은색이며 노란색과 보라색이 장식 색으로 사용된다.

리투아니아 농민여성의 가장 중요한 복식으로 에이프런을 들 수 있는데 리투아니아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아이템이다¹⁷⁾. 아욱슈테이티아의 에이프런은 흰색 린넨으로 만들어지며, 주로 밑단에 붉은색 장식을 하거나, 붉은색과 푸른색의 실은 풀어서 만든 직선으로 된 장식선을 단에서부터 붙였다. 주로 평직의 직물을 사용하였으나 점

차 다마스크(Damask)를 사용하여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코르사지라 불리는 바디스는 아우슈테이티아지역에서 특히 화려하였다. 모직 또는 혼방의 직물로 만들어지는 코르사지는 서유럽의 바로크와 로코코의 영향을 받아서 가슴 앞에 좁은 리본으로 장식을 하거나 금속제인, 금, 은선이 들어간 장식 선을 달아 화려하게 하며, 금, 은이 섞여있는 브로카이드 직물, 실크, 벨벳, 다마스크 등 화려하고 고급인 직물들로 만들어졌다.

신발은 나지네스라는 가죽의 낮은 신발과 인피섬유로 만든 비조스(vyzos)가 있으며 여름에는 린넨 실로 짠 양말과 겨울에는 모사로 짠 니트양말과 같이 신었다. 아피바로스(apyvaros)라는 좁은 끈으로 꼬아 만들어진 무릎 보호대와 같이 착용되었다. 19세기 리투아니아는 다양한 허리띠(Sahas)를 사용하는데 짜여진 구조는 매우 단순하나 밝고 다채로운 색채로 매력적인 색의 조합을 보인다.

가늘게 엮어 짠 끈은 젊은층 여자들이 선호하는 머리장식물로 여러 종류의 끈을 머리에 묶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를 정리하였다. 왕관의 가장자리를 많은 줄로 장식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든 모자도 즐겨 사용하였다. 기혼여성들은 가장자리에 단을 대거나 수술로 장식한 두건을 쓰거나 흰색 린넨레이스나 색깔 있는 보넷을 주로 사용하였다. 은제 구슬 목걸이는 아우슈테이티아 지역의 여자들의 부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검은색의 스트라이프로 길거나 짧게 장식하고, 벨벳의 단을 댄 세르메가라는 코트를 입었다. 그 위에 모직의 페이즐리 또는 린넨이나 실크의 스카프를 걸치는 것이 중요한 착장 방식이었다.

남성복식은 외투로는 세르메가를 입는데 지역적으로 스타일이 다르다. 동부지역은 허리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며, 서부지역은 옷의 뒷부분과 옆의 부분에 규칙적인 주름을 잡아 만든다. 바지는 길고, 여성복과 같은 스타일의 셔츠를 입었으며 카프탄의 아래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장식을 하였다. 마지예르카(magierka)라는 모자는 펠트로 만들어지며, 모자의 테에 꽃을 단 리본이나 깃털을 장식

하여 쓰며 주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목에는 수건을 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수발키아(Suvalkija)

수발키아라 불리는 지역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늦게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십자군 전쟁시에는 불모지로 있었으나, 네무나스강 주변 사람들의 이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들 남부지역의 사람의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와 검소한 생활, 순종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지역은 카파사이(kapasai) 지역과 자나비스카이(zanavykai)의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여성복식에 있어서는 두 지역의 차이가 분명하다.

카파사이지역은 아우슈테이티아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길고 넓은 드레스에 큰 무늬의 벨, 튜올립 등의 장식을 하며, 약간 어두운 색상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옷을 주로 입었다. 자나비스카이 지역은 매우 고급스럽고 어두운 색조의 느슨한 스타일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며,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옷이다. 스커트는 넓고 길이 방향의 스트라이프로 구성되어진다.

수발키아의 여성용 셔츠는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넓고 아름다운, 주름이 풍성한 소매와 정교한 장식을 들 수 있다. 브로드리에 앙글라이지(broderie anglaise)라고 불리는 컷 워크(cut-work)자수와 붉은 색과 검은색의 십자수를 주로 사용한다. 넓고 주름이 풍성한 시요나스는 수직선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어두운 계열의 붉은 색, 보라색, 녹색 등에서 한가지를 바탕색으로 사용하며, 대칭적인 패턴으로 여러 색의 수직선이 장식된다. 안쪽의 스커트는 흰색 또는 단색을 주로 사용하며, 자수장식을 한다. 수발키아지역은 매우 화려한데 비하여 카파사이지역은 수평적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하고, 자나비스카이지역은 수직적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하므로 전혀 다른 패턴의 구조를 보인다.

코르사지도 두 지역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두 지역 모두 브로카이드나, 실크, 모직 등의 소재를 사용하나 형태 면에서 카파사이지역의 코르사지는 짧은 포개지는 형태인 반면 자나비스카이지역은

길며, 플레어 스타일로 되어 있다. 허리띠를 사용하며, 구두는 가죽을 신고, 나무바닥에 가죽의 덮개가 있는 신발을 사용기도 한다.

이 지역 여성들의 머리장식은 미혼여성들은 끈을 엮어서 만든 장식을 하여 늘어뜨리거나 머리 위에 꽃을 장식하며, 기혼여성은 흰색의 보넷이나 흰색의 스카프를 머리뒤에 매듭을 묶어서 쓴다. 이것은 주키야(dzukija)지역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깨 위에 스카프를 덮어쓰기도 하며, 추운 겨울에는 벨벳의 단이 있거나 인조모피가 붙은 카프탄형 외투를 입었다.

남자들의 기본복식으로 뒷부분에 주름이 있는 카프탄 형태의 외투인 세르메가(semega)는 밝은 회색이나 흰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졌다. 팬츠도 외투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며, 튜닉스타일의 주름이 있거나 흰색의 자수로 장식이 된 셔츠와 함께 입었다. 실로 엮어서 만든 허리띠를 두르며, 깃털이 장식된 모자, 그리고 부츠를 신었다.

4) 주키야(Dzukija)

이 지역의 특색은 척박한 땅에 항상 가난하게 사는 주민들로 주카이(Dzukai)라고 불리며 이들의 성격은 밝고, 개방적이며, 친절하고 불임성이 있다. 동부는 아우축테이티아와 비슷한 스타일이며, 서쪽은 슈발키아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주키야(dzukija)지역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밝은 색의 사용과 작은 체크 패턴과 스트라이프 패턴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키야 지역의 젊은 여성의 복식은 실을 풀어 만든(pick-up)패턴의 직물장식이라 할 수 있으며, 셔츠의 자수는 다른 지역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나, 십자수 같은 유럽의 자수 기법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20세기에는 십자수나 간단한 자수 기법을 사용하여 검은색을 중심으로 붉은색 또는 흰색 장식 등이 보이는데 지역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슬라브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주키야지역의 스커트는 여러 가지 색과 체크 패턴이 많이 사용되는 짧고 넓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기에는 근접지역인 슈발키아의 스트라이프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에이프런은 흰

색과 빨강, 청색 체크로 된 린넨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는 서쪽의 아우축테이티아지역과 유사하다. 짙은 계열의 붉은색, 녹색, 푸른색과 검은색을 사용하는 코르사지는 차차로 넓어진 형태이나 앞부분이 겹쳐지지 않는다. 끈으로 엮어진 새쉬벨트는 다양한 장식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신발은 가죽의 구두를 가치있게 생각하며, 나지네스라는 가죽의 낮은 신발과 인피섬유로 만든 비조스를 일반적으로 착용하는데, 구두 코를 뜨개질로 떠서 만든 신이 주키야의 특별한 구두이다.

머리장식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혼인 여성은 둥근 왕관 형태의 모자에 색색의 끈을 엮어서 장식을 하며, 기혼의 여성은 빨강과 청색의 장식이 있는 커다란 스카프를 머리에서 어깨까지 늘어뜨려 쓰고, 보빈 레이스의 보넷을 사용하기도 한다. 겨울용 외투는 세르마가이다. 특별한 장식품으로 긴 레이스가 장식이 된 흰색의 린넨으로 만든 스카린스(skariny) 악세서리가 있다.

남자의 복식 또한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이 카프탄 형의 코트와 셔츠, 팬츠를 입으나 슬라브복식의 영향으로 쇠로 된 여덟단추를 사용한다. 마지에르카라는 깃털과 꽃이 장식이 된 모자를 쓴다.

5) 소수리투아니아(Lithuania Minor)

서쪽의 항구인 클라이페다지역은 루터교를 받아들인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지역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리투아니아의 다른 지역과는 그 환경이 매우 다르다. 17-18세기의 이 지역은 밝은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두운 색의 장식이 배제된 복식을 받아들이므로써 매우 엘레강스하며, 모던한 스타일로 클라이페다지역의 민속의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특징은 수수하며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많은 전통적인 성향을 갖고있다. 단순한 복식과 검정, 갈색, 청색, 라일락, 녹색 등의 색채가 사용되며, 체크 패턴과 같이 사용되는 넓은 스트라이프 직물, 그리고 여러 겹의 스커트와 환상적인 스카프를 착용하였다. 셔츠는 어깨에 패드가 달린 라클란 소매의 튜닉스타일이며, 코르사지에는 날개 형태의 덧천인 폴리키(poliki)가 부착되어 있다. 이

지역 여성복의 특징은 에이프런 오른쪽 허리에 델모나스(delmonas)라는 주머니를 묶어서 장식과 실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¹⁸⁾ 이런 주머니의 착용은 스웨덴 민속복식에서도 보여지는데, 초기 바이킹들의 생활상에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서, 스웨덴에서 발트해에까지 이르는 바이킹족의 문화가 전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에이프런은 전통적으로는 흰색의 린넨에 수평 혹은 수직의 스트라이프 패턴의 장식을 하였는데, 후기에는 어둡 색조로 변화되었다. 머리장식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다.

남성복식의 특이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무릎길이의 팬츠를 착용한다는 점으로, 이것은 서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허리의 벨트 또한 가죽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2) 발트해 연안 민속복식 기본구조

유럽은 지리적인 성향과 문화적 특징에 의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크게 나뉜다. 동유럽은 슬라브인이 중심이 되어 발달을 하였는데 슬라브인은 후일 동슬라브인, 서 슬라브인, 남 슬라브인으로 분화된다. 이들의 최초 거주지를 프리페트(Prifet)유역에서 남쪽의 카르파티아(Carpatian)산맥과 서쪽의 비슬라(Vistula)강까지 확장된 선으로 보고있으며 원시 슬라브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게르만인과 발트인, 트라시아(Trasia)인에 인접해 있었다고 보고있다.¹⁹⁾ 이러한 발트 연안의 국가들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러시아, 발트해를 건너 스웨덴 등이 있다. 발틱 연안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복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노르딕패턴이나 스칸디나비아안 성향을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²⁰⁾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연안의 국가들의 기본복식의 구조는 대부분 흰색의 커프스가 달린 낮은 어깨의 블라우스, 길고 풍성한 스커트, 소매가 없는 조끼형의 바디스, 왕관 모양의 모자 또는 보넷 형태의 모자가 여성복식의 기본형이다. 남자의 복식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 흰색 셔츠와 웨이스트코트에 발목까지 오는 긴 팬츠를 기본으로 하며, 스웨덴, 덴마크 등의 나라는 무릎길이의 브리프를 기본 복식으로 한다. 반면 아이템의 구성

은 서로 유사하다.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라트비아의 여성복은 19세기에서부터 착용되는 복식을 현대화 한 것으로, Basque형의 바디스와 자수가 많이 놓여있는 주름 스커트를 같이 착용하고 있다. 호박목걸이는 발트연안 국가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왕관같이 보이는 구슬장식으로 된 모자는 전형적인 머리장식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²¹⁾

라트비아는 주변 국가와는 매우 다른 복식의 형태를 보인다. 여성의 길고 풍성한 스커트는 어두운 색의 무늬가 없는 무지직물 또는 검은 색 바탕에 “노르딕(nordic)”패턴이 수 놓여진 넓은 선이 둘러져 있다. 붉은 색의 소매가 없는 바디스는 은색 선으로 장식이 되었으며, 블라우스는 작은 칼라가 납작한 형태로 붙어있다.<그림 3> 고운 검은색의 자수가 블라우스의 어깨선과, 컬러, 목의 트임 부분과 소매 끝에 장식되어 있다. 리투아니아와는 다른 금, 은 및 적색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다. 고풍스런 둥근 은장식은 블라우스의 목 부분을 여미거나 스코틀랜드의 망토 같은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흰색의 양말과 검은 구두를 신는다(<그림 6>참조).



<그림 3> 라트비아(왼쪽)와 에스토니아 여성복식(Folk Costumes of the World, 1999, p.103)



<그림 4> 라트비아 현대 민속복식, 매우 화려한 장식이 있는 Nica dress(The World Dress, 1994, p.55)



<그림 5> 에스토니아의 남·여복식 (세계의 傳統服飾, 2001, p84)



<그림 6> 라트비아여성복식 (세계의 傳統服飾, 2001, p84)



<그림 7> 라트비아 여성복장 (세계의 傳統服飾, 2001, p.84)

남자는 길거나, 무릎길이의 흰색 또는 크림색 코트를 입으며, 밑단은 검은색의 자수장식이 있고 긴 브레이드 벨트를 묶는다. 긴바지는 코트와 같은 흰색이나 크림색으로 흰색, 또는 색이 있는 밴드로 발목에서 주름을 잡아 묶는다. 구두는 검은색 구두, 흰색 양말에 흰색의 셔츠는 접혀진(turned-down) 칼라이며, 실로 엮은 리본 타이가 부착되기도 한다. 긴 브레이드벨트로 코트를 둘러맨다.²²⁾

에스토니아는 노래와 민속춤, 화려한 복식으로 가득 찬 나라이다. 북부국가의 민속 복식은 수평의 밴드가 둘러진 스커트 또는 수직의 스트라이프 스커트가 일반적이다. 스커트는 무거운 직물로 만들어져 허리에서 주름(gather)이 잡혀 있거나 고운 턱(tucks)이 있다. 어두운 레드가 일반적인 색상이며 블랙이나 노랑, 오렌지 컬러가 쓰이기도 한다. 소매가 없는 바디스가 다른 복식과 함께 입혀지고 은으로 된 장미 모양의 클립으로 여며지거나 장식이 된다. 흰색의 긴소매 블라우스는 소매부리에 주름장식이 되어있으며 레이스가 달린 넓은 칼라는 브로우치로 여며진다. 수직의 스트라이프 스커트는 같은 모양의 두꺼운 에이프런과 같이 착용한다. 검은 색의 벨트는 은장식 버클로 스커트와 에이프런 위를 고정한다. 블라우스는 어깨와 소매 끝, 칼라의 가장 자리 등에 레드와 블루의 자수로 장식이 된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스타킹을 주로 신으나 스트라이프 또는 문양이 있는 스타킹을 무릎까지 신기도 한다. 스칸디나비아의 복식에서 보여지듯이

허리 벨트에 주머니를 달기도 한다. 남자 복식은 무릎에서 은 단추로 여머지는 검은색의 브리치(breeches)를 패턴 몰이나 어두운색 웨이스트 코트, 브레이드 또는 브로치로 여머는 셔츠와 함께 입는다. 브레이드 벨트는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묶으며, 스컬 캡을 쓴다.²³⁾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스웨덴의 심장이라 불리는 달라르나(Dalarna)지방의 축제는 특별히 화려하여 모든 시민이 전통복식을 입고 전통춤을 춘다. 스웨덴의 스타일은 덴마크와 유사한데, 스커트는 무겁거나 길지 않고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이 주름을 잡으며 춤의 움직임을 우선 시 한다. 일반적으로 스커트는 단색을 쓰는데 파랑, 빨강, 녹색, 노랑, 또는 블랙을 시즌에 따라선 선택을 한다. 바디스는 레이스로 앞가슴을 장식하는데 흰색의 소매가 긴 블라우스와 같이 착용한다.

각 지역 별로 각각 하나의 스타일로 된 에이프런 또는 복식이 있다. 에이프런은 무늬가 없기도 하고, 수직의 스트라이프 또는 수평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무늬와 단색간의 조화 등을 사용한다.

머리장식은 매우 심플하게 다양한 보닛을 사용하거나 뒤로 돌려쓰는 캡을 사용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미혼녀는 레드 보닛을, 기혼은 화이트 보닛을 사용한다. 쇼올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스톡홀름지역은 밝은 레드색상, 플라워 패턴과 가장자리에 레드 색상의 프란지 장식을 사용한다. 많은 복식에 브레이드 벨트를 사용하는데 사이드에 길게 술 장식이 달린 매듭이 내려오게 묶는다. 허리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전해지는 형태로 작은 주머니를 벨트에 매달아 사용한다(<그림 8>참조).²⁴⁾

리투아니아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폴란드의 민속의상은 비교적 단순한 모습이다. 린넨이나, 모직 등의 수직 의복에, 겨울은 가죽이나 모피를 더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복식의 대부분은 천연색 직물에 대응하는 염색에 의존하여 파란색, 갈색, 검정색 등의 의복으로 나타났다.

마조시에프(Mazowsze)스타일은 대담한 줄무늬와 체크무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한 의복을 입고 줄무늬 스커트 위에는 주름을 잡은 줄무늬의 짧은



<그림 8> 스웨덴 민속복식 (Folk Costumes of the World, 1999, p.29)



<그림 9> 크라코우 지방 3인조밴드, 19세기 민속의상 (The World Dress, 1994, p.53)

에이프런을 입고 또한 옥외에서는 줄무늬의 케이프나 큰 줄무늬의 솔을 걸친다.

워비치(Lowicz)의 남자복식에는 반바지에 줄무늬의 천이 사용되었고 검은색 바탕 천에 큰 꽃무늬가 있는 폭 넓은 밴드를 장식하고, 초기에는 혼례나 축제 때는 직선재단의 흰 코트를 입었으나 오늘날은 검정색이다.

바르샤바 북서쪽의 쿠르피에(kurpie)지방은 워비치와 전통적인 민속문화의 면에서 서로 겨누고 있다. 이곳의 푸시차체노(푸른숲)와 시차비아라(흰숲)에서는 특히 여성의상 스타일이 조금 색다르며, 남성 의상보다 오래 존속되고 있다. 양쪽지방의 남성은 두꺼운 천의 갈색 코트를 착용하고 머리장식은 버섯모자를 쓴다. 대마와 린넨으로 된 바지나 셔츠를 입고 참피나무 껍질로 엮어 만든 구두를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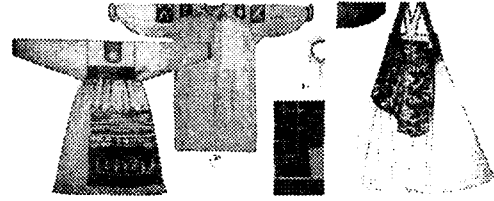
<그림 10> Lowicz지역의 민속의상
(Folk Costumes of the World, 1999. p.30)



<그림 11> Krakow지역의 민속의상
(Folk Costumes of the World, 1999, p.31)

푸시차제노지역의 여성의상은 줄무늬나 체크의 수직 천을 써서 스커트와 에이프런과 케이프를 만들었다. 무늬가 없는 스커트에는 리본으로 테두리를 하고 흰색 에이프런이나 그 위에 줄무늬 에이프런을 겹쳐 입었다. 커프스, 어깨와 깃에 자수가 있는 흰색 블라우스는 소매 없는 바디스와 함께 입었고 바디스는 허리 길이까지의 것이거나 또는 앞쪽에 사이가 뜨도록 4개의 탑을 넣은 바스크식 재단이다.²⁵⁾

백러시아 민속복식의 형태는 기본 복식으로 루바하라는 슈미즈와 사라판과 모자이고 때로는 앞치마와 허리띠를 착용한다. 이러한 기본 복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되는 것이 이다. 관모는 기혼과 미혼을 구별하는데 기혼은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관모를 사용하였다. 사라판은 아주 화



<그림 12> 백러시아 복식
(Costumes Patterns and Designs, 1990 p.48)²⁶⁾



<그림 13> 오른쪽의 백러시아 여인과 리투아니아커플
(Folk Costumes of the World, 1999, p.105)

려한 의복으로 구성은 여러 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긴 플레어 튜닉이고 일반적으로는 앞쪽에서 여며지며, 어깨에 작은 요크라든가 뿔뿔 같은 것이 붙어 있다. 그 아래 긴 슈미즈를 입었다, 반면에 사라판을 입으면 깃과 팔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소매를 입거나 양질의 천으로 된 따로 만든 소매를 달거나 때로는 절약을 하기 위하여 함께 기우는 습관도 있었다. 사라판 위에 짧게 플레어된 소매있는 재킷을 입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을 채우기도 하고 모피로 테두리 꾸밈을 한 것도 있다.²⁷⁾

<표 1> 리투아니아 주변 국가들의 복식

국가	소재	색상	기본복식	장신구	모 자
리투아니아	린넨, 수직의 모직, 아마, 또는 면 등의 혼방제품, 바디스를 위한 브로카이드, 벨벳, 실크	빨강, 파랑, 노랑, 녹색, 청색, 보라 등의 다채로운 컬러와 흰색, 검은색의 조화. 빨간색을 선호함	여자-셔츠, 스커트, 바디스, 에이프런, 숄 남자-코트, 셔츠, 바지,	자수 장식 실로 엮은 브레이드 벨트(Sash) 호박, 구슬 목걸이	여자-랑체르(미혼) 보넷, 두건, 스카프(기혼) 남자-마지예르카
라트비아	린넨, 모직, 모 혼방	어두운 푸른색 또는 검은 색에 붉은 바탕에 "노르딕" 패턴, 흰색, 빨간색	여자-길고 풍성한 스커트, 셔츠, 바디스, 남자-흰색 셔츠, 흰색 팬츠	자수장식 작은 리본 타이(남자용), 실로 엮은 브레이드 벨트	실버와 골드 레드로 장식된 왕관
에스토니아	린넨, 면, 모직, 모 혼방	어두운 레드, 블랙나 노랑, 오렌지, 흰색 수직의 스트라이프 패턴	여자-흰색의 셔츠, 주름스커트, 바디스, 에이프런 남자-목이 높은 셔츠, 조끼, 무릎 길이의 팬츠	소매부리의 자수 장식, 브로우치, 허리 벨트의 주머니, 실로 엮은 브레이드 벨트	스컬캡
백러시아	린넨, 모직, 면과 모 혼방, 모피로 테두리	흰색, 빨간색, 노랑, 초록	여자-루바하, 사라판, 재킷, 에이프런 남자-코트, 긴 바지, 루바하		기혼과 미혼을 구별하기 위해 모자를 사용. 기혼-머리를 모자 안에 감춤
스웨덴		블루, 레드, 그린, 옐로우, 또는 블랙, 흰색	여자-흰색 블라우스, 스커트, 에이프런, 바디스, 머리수건	실로 엮어 만든 브레인 벨트, 에이프런 옆에 맺는 작은 주머니	여자-미혼녀는 레드 보넷을, 기혼은 화이트 보넷 또는 뒤로 돌려쓰는 캡
폴란드	린넨, 대마, 모직 등의 수직직물, 가죽, 모피	천연염색 위주, 검정, 파랑, 갈색, 검정색, 흰색, 스트라이프 패턴, 체크패턴의 직물	여자-튜닉 스타일 셔츠, 주름 스커트, 바디스, 에이프런, 케이프, 남자-코트, 긴 바지 또는 반바지, 셔츠, 모자, 참피 겹질 구두	스트라이프 패턴의 케이프 또는 숄	여자-머리수건, 남자-버섯모양의 모자

IV. 리투아니아 민속복식의 정착요인

리투아니아의 민속복식은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 민족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민족문화이기도 하다. 세계의 민속복식이 19세기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소멸되어 갔으며, 대부분의 민속복식은 농촌을 중심으로 현대화, 도시화와는 반대의 의미의 쇠퇴되는 문화로 인식되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주변국가와의 정치적, 사회적 혼돈 속에서 러시아의 민족 동화의 정책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민족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민족적 자긍심과 고유 문화에 대한

복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민족 문화를 대표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체성을 강조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의 가장 표면화된 도구로서 민족의상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민족의상이 출신나라 혹은 지방의 시차적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공동체로서의 집합의식을 환기하고, 재확인시키는 집합표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이런 까닭에 러시아에서 독립된 리투아니아의 대통령은 1910초 민족 부흥정책의 일환으로 민족복식의 수집과 고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후로도 여러 차례의 전시(1900년 파리의 월드페어, 1906년 Dresden, 1911년 Moscow)를 통해 민속복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속복식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투아니아의 지방의 농부들은 전통적으로 19세기까지 집에서 대부분의 직물을 제작하여 의복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셔츠, 에이프런, 두건, 스카프 등 대부분의 의류소재는 아마나 린넨의 소재로 집에서 방직을 하거나 리투아니아 주변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품질은 직조의 섬세함과 백색도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모든 여성들은 최고의 직조기술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옷감은 린넨이나 수직의 모직소재로 간단한 조직을 갖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섬유 자체의 회색, 갈색, 흰색, 검은색에,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를 주로 썼다. 겉옷은 모직을 주로 사용하고 아마 또는 린넨, 면 등과 함께 혼방하였으며, 실을 풀거나 덧대는 방식으로 장식하였다. 특별한 날에는 두건이나, 머리수건, 에이프런, 린넨 스카프 등에 보빈기로 짠 레이스를 장식하기도 한다. 20세기까지 리투아니아 여성들은 다양한 직조기술과 타래실로 엮어나 풀어서 만드는 장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뜨개질이나 실로 짜는 니트제품은 양말이나 허리띠정도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여성들은 장신구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브로카이드, 펠벳, 실크, 모직 페이즐리 등 장식적인 직물을 사용하여 코르사지라는 조끼처럼 생긴 바디스를 장식하거나 보석으로 악세서리를 즐겨 사용하였다. 특히 코르사지는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적 특색을 갖는 화려한 장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 밖에 리투아니아의 농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모직물로 된 슈르두타즈라는 외투를 입었다. 특별한 날에는 흰색의 면으로 된 셔츠와 이랑 진 직물의 린넨 모자를 썼다.

여자의 기본 복식은 목이 높은 린넨의 튜닉형 셔츠로 마르슈키키네이라는 셔츠의 의미인 전통적인 셔츠를 입는데, 스커트 아래 단에 나선형모양의 동판으로 된 장식이 있는 스커트를 에이프런과 같이 입는다. 스커트는 시요나스라고 부르며,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겹쳐 입고, 에이프런, 코르사지, 구두가 기본 복식을 이룬다. 장식물은 다양한 스카프, 머리수건 악세서리 등과 함께 실을 꼬아서 만든 허리띠를 사용한다. 수제의 에이프런은 각지방의 특색을 나타내며, 검정, 빨강에 여러 색을 혼합하여

수놓는 자수와 함께 사용되었다.²⁹⁾ 가장 중요한 옷으로는 모직으로 된 솔로서 구리로 만든 큰 브로치나 핀으로 외투 위에 고정하여 입는데 여러 개의 스카프와 솔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보석이나,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구리, 은 및 금 등으로 체인모양이나 펜던트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리투아니아 여인의 장신구들은 실버, 코랄, 유리로 만든 목걸이를 많이 사용하며 특히 호박을 좋아한다. 호박은 전통적으로 리투아니아의 민속품으로 유명했으며, 사랑과 순종을 상징하기도 한다³⁰⁾. 직물로 된 벨트인 Sash는 전통의상에서 평화와 행복, 안락한 삶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에이프런과 함께 의무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Sash벨트들은 매우 산뜻한 컬러로 리본, 타이형의 매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묶는데 화려하게 보여진다(<그림 16><그림 17><그림 18>참조). 추운 겨울에는 세르메가 라고 하는 긴 코트나 짧은 코트인 세르메겔레를 입기도 하였으며, 모피코트를 입기도 하였다.

미혼 여성은 머리에 리본이나 꽃을 장식하며, 기혼인 여성은 보넷형의 모자나, 머리수건, 또는 두건을 쓰기도 한다. 그 중 머리수건은 기혼여자들이 사용하는 나마츠가 있고, 미혼여성은 직조 시에 여러 가지 무늬가 짜여진 리본밴드에 인조 꽃장식을 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성을 살린다. 구두는 라피스, 파스타이라 불리는 구두가 있으며, 나무로 만든 나막신은 클람페즈라고 하여, 리투아니아의 전통 신발로 매우 유명하다³¹⁾.

남자의 복식은 기마민족의 복식과 비슷하다. 특별한 날에 리투아니아의 남자들은 긴 스트레이트 팬츠에 핀 턱장식의 셔츠와 세르메가라는 카프탄 스타일의 코트를 입었다. 조끼 아래 천으로 장식된 허리띠나 가죽 벨트를 매기도 하였다. 셔츠에는 집에서 만들거나 구입한 실크, 모직, 린넨 등의 여러 색으로 된 손수건을 매기도 한다. 펠트모자에는 공작 또는 수탉의 깃털을 꽂아서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리투아니아 전통복식의 자료는 16-17세기에 활동한 독일 화가들의 그림에서 많이 보인다. .

예를 들어 Eduard Gisevius(1798-1880)는 Lower Nemunas 지역의 일상복을 입은 소녀의 그림을 약

150장 정도를 그렸다. 또한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예술원 회원이며 민속학자인 에드워드 볼테리스(Eduardas Volteris)는 1884년에서 1887년까지의 리투아니아 여행을 통하여 몇 벌의 전통복을 구입하여 모스크바 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그 자료는 민속복식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³²⁾. 이러한 기본 복식은 지역적인 차이점을 보이며 발달하였으며 지역적인 정서에 관련하여 약간의 상이한 형태 또는 장식기술, 색상, 옷을 착용하는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³³⁾



<그림 14> 19세기 리투아니아 여성 (좌)
(유럽의 민속의상, 1979, p.58)

<그림 15> 18-19세기 리투아니아 농부와 Samogitia 여인,
그리고 폴란드의 양파장사(우)
(Illustrated History of European Costume, 2000, p.139)³⁴⁾



<그림 16> 1960-70년대 여성복식
(세계의 傳統服飾, 2001, p.85)



<그림 17> 1990년 여성 의상
(세계의 傳統服飾, 2001, p.85)



<그림 18> 리투아니아 남·여
(The Costumes, 2001, p.120)³⁵⁾

<표 2> 지역별 여자복식

	제마이티아	아욱슈테이티아	수발키아	주키아	소수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셔츠 (마크 슈키 네이)	소매와 칼라에 빨간색 자수장식의 튜닉스타일의 화이트 린넨 셔츠	어깨에 견장이 있는 튜닉스타일. 소매와 커프스에 자수장식과 트임이 있음.	넓은 주름이 풍성한 소매의 셔트로 커프크 자수와 붉은 색과 검은색 십자수 사용. 린넨 소재	린넨의 셔츠로 검은색, 빨간색과 흰색의 장식을 한 십자수	어깨에 패드가 달린 란글라스 매의 튜닉스타일의 셔츠
바디스 (코르사지)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어두운 색의 고운 격자 무늬 또는 스트라이프 패션직물	브로케이드, 실크, 벨벳, 다마스크 등 화려한 직물로 앞가슴에 리본이나 금, 은이 섞여있는 장식을 함.	브로케이드, 실크, 모직, 자나비스카이 지역-길고 플레이졌음. 카파사이지역-짧게 허리에 포개지는 스타일	질은 계열의 빨강, 녹색, 푸른색, 검은색 앞이 넓어진 형태	포리키라는 날개 덧천이 달렸음
에이프런	흰색 린넨 위에 빨강, 녹색, 흰색, 노랑이 섞인 지그재그 무늬의 자수. 풍성한 주름이 잡혀 있음.	흰색 린넨으로 밑단에 빨강, 파랑 등의 장식 선이 있음. 처음에는 평직이나 점차 다마스크로 화려해짐.		흰색, 빨강, 청색의 린넨, 아욱슈테이티아와 유사	멜로나스라는 주머니가 에이프런 옆에 달림. 흰색 린넨에 수평, 혹은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
스커트 (시요나스)	빨강, 녹색, 보라, 어두운 빨강 등 수직스트라이프의 걸스커트와 격자무늬 패턴의 안쪽 스커트	모직이나 린넨 사용. 녹색과 빨강이 주요 색이며 노란색과 보라색이 장식색임.	수직의 스트라이프 패턴, 안쪽의 스커트는 단색. 자수장식. 자나비스카이 지역은 수평 스트라이프	여러 가지 색과 체크 패턴은 많이 사용	체크와 넓은 스트라이프 직물의 여러 겹의 스카프
구두	레이스가 달린 가죽구두 또는 클럽 페르라는 나막신	나지네스, 인피섬유의 비조스 등을 사용	가죽구두. 나무바닥에 가죽덧개가 있음.	나지네스, 비조스, 뜨개질로 뜬 신발	
머리장식	미혼-랑체즈라는 끈으로 엮어 만든 머리장식 기혼-머리전체를 감싸는 두건 또는 보넷	미혼-왕관스타일 랑체즈. 기혼-흰색의 린넨으로 만든 모넛 또는 두건	미혼-끈을 엮어서 만든 머리장식 기혼-흰색 보넛이나 흰색 스커트	미혼-랑체즈 기혼-빨간색과 파란색 장식이 있는 스카프	다른 지역과 유사
비고	진한색을 선호하며, 주요 컬러는 빨강과 검정, 녹색과 검정의 배색을 선호. 기하학무늬가 있는 전통자수	에이프런이 매우 중요한 아이템. 코르사지가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 매우 화려함	주키아 지역과 비슷한 모양	수발키아와 비슷. 작은 체크패턴과 스트라이프패턴을 동시에 사용. 흰색 린넨으로 만든 스킨 악세사리 사용	루터교 주민이 대다수이며 종교의 영향에 의해 어두운 색과 장식이 배제된 복식을 채용. 매우 엘레강스하며 모던한 스타일
그림					

출처: www.lfcc.lt, Anthology of Lithuanian Ethnoculture)

<표 3> 지역별 남자복식

	제마이티아	아욱슈데이티아	수발키아	주키아	소수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셔츠	린넨으로 된 셔츠. 커프스와 칼라 곳에 자수 장식을 함. 덧 칼라를 사용하기도 함.	여성복과 같은 스타일, 자수장식, 흰색 린넨	넓은 튜닉 스타일의 셔츠, 주름이나 자수 장식, 흰색	린넨의 흰색 셔츠, 자수 장식	자수 장식의 튜닉 스타일의 셔츠
코트	허리에 주름이 있는 모직 코트로 주로 밤색, 회색 등 자연색조. 세르메가(sermega)-카프탄형의 목선이 높은 코트 쉴르두타쥬(surdutas)-라펠이 있는 코트	동부 지역-허리에 주름이 있는 세르메가 서부 지역-뒷부분과 옆부분에 주름이 있는 세르메가	뒷부분에 주름이 있는 세르메가 밝은 회색이나 흰색	모직의 세르메가	모직의 세르메가
팬츠		긴 일자형의 팬츠	외투와 같은 소재인 긴 바지	긴 팬츠	무릎길이의 팬츠
구두	부츠, 클람페즈, 나지네스		부츠	부츠, 나지네스	
모자	펠트모자, 어두운 색, 공작이나 수탉의 깃털 장식	펠트모자(마지에르카)-테에 꽃을 단 리본 장식	깃털 장식의 모자	마지에르카	다른 지역과 유사
비고	흰색과 빨간색의 실크, 또는 모직 스카프를 맴	목에 수건 장식		다른 지역의 남자 복식과 별반 차이 없음. 슬라브 복식의 영향으로 쇠로 된 여밈 단추를 사용함.	이 지역에서만 무릎길이의 팬츠가 있다. 이는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임.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리투아니아와 그 주변 지역의 복식을 통하여 살펴본 민족복식의 유형과 그 문화적 정체성에 관련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투아니아의 민족복식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다른 민족의 복식 유형과 기본 복식의 아이템 구성 면에서는 같은 구조를 갖는다.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연안의 국가들의 기본 복식의 구조는 대부분 흰색의 린넨 소재로 만든 자수 장식의 커프스와 깃이 달린 낮은 어깨의 블라우스, 길고 풍성한 허리에 잔주름 또는 규칙적인 주름이 있는 스커트, 화려한 장식을 하는 린넨 또는 모직 혼방의 에이프런, 소매가 없는 조끼형의 바디스, 왕관 모양의 모자 또는 보넷 형태의 모자가 여성복식의 기본

형이다. 남자의 복식은 린넨으로 된 튜닉형 화이트 셔츠와 웨이스트 코트, 긴 팬츠, 모직 코트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무릎길이의 바지를 입는다. 대부분의 발트지역 국가들은 서로 유사한 기본복식구조를 갖는데, 이는 복식문화가 장구한 세월동안 이루어진 여러 민족간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혼합된 공동의 문화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중요한 리투아니아복식의 특이점은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컬러의 Sash벨트와 에이프런을 들 수 있는데 벨트는 평화, 행복, 안락한 삶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가치를 갖는 중요 아이템이며, 에이프런과 벨트의 컬러로 각 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민속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여인들은 의복의 장식을 많이 사용

하는데, 실버와 호박 등을 선호하며, 제마이티아의 클람페즈라는 나막신과, 라피스, 파스타이, 주키야 지역의 캄페즈라는 니트로 된 구두 등 지역 별로 사용되는 구두의 종류도 다양하다.

둘째, 리투아니아 민족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투아니아의 민족복식은 크게 제마이티아와 아욱슈테이티아 지역의 두 개의 원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방언의 사용지역에서 나타나듯이 민족복식의 유형에서도 두 개 지역으로 크게 대변되며, 각기 그 안에서 계열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민족복식에 있어서 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지역마다 다른 컬러배색의 허리띠, 차별화된 에이프런의 자수장식의 컬러배색, 모자의 컬러, 스커트의 컬러 또는 무늬의 패턴 등 색에 의해 지방의 상징적 표현체계를 만든 것 등 스타일에 의한 변화보다는 컬러 배색에 의한 차이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페다의 경우 매우 차별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것의 표현은 어둡고, 차분한 컬러의 배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리투아니아의 민족복식은 오랜 세월 러시아 폴란드 등 타민족에 의한 지배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민족정체성 고취를 위해 20세기 초반 수집되고 연구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민족이 갖는 공동체적 의식 표현의 도구로서의 민족복식이 갖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민족의 배경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그것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민속의상의 관계를 북유럽지역의 리투아니아를 중심으로 리투아니아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요건에 의한 민속의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주변국가와의 역사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민속의상의 비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민족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발트지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최근에 일고 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연혁이 짧은 이유로 인하여 야기된 참고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대략적인 개요의 고찰로서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발자취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립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민족의 역사와 민족복식에 대해 지역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민병훈 (1996). 東西文化 交涉史에 보이는 幻術. 미술사 연구. p.51.
- 2) 小川安郎 (1979). 民族服飾의 體系. 衣生活 研究會. p.13.
- 3) 田口良司 (2001). 民族衣裳의 記號學 再考. 世界の 傳統服飾. 文化出版局. p.113.
- 4) Government Publications-United States (1997 June). *Lithuania, Background Notes on Countries of the World*. Lithuania, p.1.
- 5) 沈敬旭 (1992). 발트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美蘇研究. 단국대학교. p.182.
- 6) V. Kucinskas (2001). Population genetic of Lithuania. *Annals of Human Biology*, 28(1), p.1.
- 7) Juozas Kudirika (1991). The Lithuanians an ethnic portrait. Lithuanian Folk culture Centre(www.lfcc.lt)
- 8) 沈敬旭. 앞의 책. p.171.
- 9) Government Publications-United States. *op. cit.*, p.5.
- 10) 이정희 (1988). 동유럽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pp.183-185.
- 11) Burant/ Stephen (1993).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regional context: Poland and its eastern neighbours-lithuania, Belarus, Ukraine. *Europe-Asia Studis*, 45 (3), p.339.
- 12) 沈敬旭. 앞의 책. pp.172-173.
- 13) 제임스 스노우던 (1979). 유럽의 민속의상. 경춘사. p.62.
- 14) Natalia Kalashnikova/Galina Pluzhnikova (1990). *National costumes of the Soviet Peoples, Moscow "Planeta"*. pp.68-71.
- 15) *Ibid.*, p.70.
- 16) Rytis Ambrazevicius (1996). *Lithuanian Roots, Lithuanian Folk Culture Center*(www.lfcc.lt)
- 17) Natalia Kalashnikova/Galina Pluzhnikova. *op. cit.*, p.70.
- 18) *Ibid.*, pp.68-71.
- 19) 이정희. 앞의 책. p.3.

- 20) Robert Harrold/Phyllida Legg (1987). *Folk costumes of the world*, Blandford. p.104.
- 21) *The word dress, reed international books*, 1994, p.55.
- 22) Robert Harrold/Phyllida Legg. *op. cit.*, p.104.
- 23) *Ibid.*, p.104.
- 24) *Ibid.*, p.30.
- 25) 제임스 스노우던. 앞의 책. pp.63-66.
- 26) Max Tilke (1990). *Costumes patterns and designs*. Rizzoli. p.48.
- 27) 위의 책. pp.57-60.
- 28) 田口良司. 앞의 책. p.113.
- 29) Robert Harrold/Phyllida Legg. *op. cit.*, p.105.
- 30) Natalia Kalashnikova/Galina Pluzhnikova. *op. cit.*, p.71.
- 31) *Ibid.*, pp.68-71.
- 32) <http://postilla.mch.mii.lt/>
- 33) Natalia Kalashnikova/Galina Pluzhnikova. *op. cit.*, pp.68-71.
- 34) Mary Alexander (2000). *European costume*. Collins & Brown Ltd., p.139.
- 35) Pepin van Roojen (2001). *Costume*. The Pepin Press. p.120.